

# 완도군, 지방 소멸 대응 '지역 살리기' 나섰다

### 사업비 194억원 확보...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교통망 확충·일자리 창출·의료 서비스 등 확대

완도군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기금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살리기에 나섰다. 완도군은 도시지역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금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완도군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올해와 내년도까지 2년간 기초 지원 계정(정부 지원) 140억 원, 광역 지원 계정(전남도 지원) 54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 감소 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원하며, 기초 자치단체(인구 감소 지역 89곳, 관심 지역 18곳)에 75%, 광역 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군은 확보된 기금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되찾아 '누구나 살고 싶은 완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도서로 형성된 생활권역 교통망 확보 및 문화·복지 시설 구축,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보다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맞춤형 생활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을 이 같은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노소보 생활권 통합 연도교 사업 ▲다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완도군 농산어촌 미래 희망단지 조성 ▲활력을 찾는 안생 청년

마을 조성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의료 취약지 인공 심장실 확충 ▲노화 넓은 급수 시설 확충 ▲도서민 건강 돌봄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만큼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채보부장 ejhung@

## 달마고도·남파랑길 걸으며 가을 추억 쌓기



달마고도 걷기행사.

<해남군 제공>

### 해남군, 12월 10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걷기행사

해남군이 명품 둘레길 달마고도와 남파랑길에서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해남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달마고도·남파랑길 가을여행 추억 쌓기'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적인 걷기 명소로 거듭난 명품 둘레길 달마고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남파랑길 걷기는 가을빛 물들 숲길과 땅끝바다를 조망하며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10월 8일·11월 12일·12월 10일)에는 일출을 맞이하며 걷는 '새벽걷기', 넷째 주 토요일(10월 22일·11월 26일)에는 달마고도와 남파랑길(89, 90코스)을 끝까지 천천히 걸어보는 '마냥걷기'가 진행된다. 매 회차 트레킹가이드가 함께하며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를 실천한 참여자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새벽걷기'는 차수별 30명, '마냥걷기'는 차수별 4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남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달마고도 페이지) 또는 관광실 축제팀(061-530-5159-516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선선한 가을날, 단풍이 물든 달마고도의 숲길과 갈대밭이 아름답게 펼쳐진 남파랑길 바닷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의 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시나요

### 영광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영광군이 최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혈관 3대 숫자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알고 관리해서 건강한 혈

관, 즉 레드서클(Red Circle)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건강인식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9월 첫째 주를 집중 홍보 주간으로 지정 전국 합동 캠페인으로 운영한다. 영광군은 지난 16일에 불갑산 상사화 축제장에

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직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과 혈압을 검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9월 한 달 간 지역 내 전광판 및 사업장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읍·면 복지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혈압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 불 밝힌 '신안 장산 북강 선착장 등대'

### 신안 안좌·자라·장산도 합류지점...설치 마치고 본격 운영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장산면 북강 선착장 인근 수중암초에 '서도내기북방등표'를 새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비 3억6000만원이 투입된 이 등대는 직경 6.0m, 높이 14.4m 규모의 원형콘크리트 구조물로, 등대의 북쪽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 야간에는 18km 이상 거리에 있는 선박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 등대가 설치된 해역은 안좌도, 자라도, 장산도 합류 지점으로 유속이 빠르고 주변에 크고 작은 수중암초가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여객선 야간운항으로 항로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사와 지역민들이 등대 설치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소도등표'에 이어 설치됐다. 이번 등대는 항해 이정표 역할은 물론 암초 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해 줌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조업 어선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해상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신안군 장산면 북강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서도내기북방등표.

बाट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국내외 조류전문가 오늘 신안 자은도로

### 국제철새심포지엄...호주 바닷새그룹 연구원 등 150명 참가

신안군이 29일 자은도에서 한국조류학회와 공동으로 '2022 신안 국제철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신안갯벌, 철새서식지 지속가능한 보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사무국 대표와 일본 야생조류학회 연구원, 호주 바닷새그룹 연구원 등 국내외 조류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주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새 개체군의 지속적인 감소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은 국내에 기록된 조류 550여종 중 400종 이상이 통과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갯벌을 이용하는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번식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압해도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 서식지'로 인정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신안갯벌 1100㎢ 전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이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